

# 꾸란을 알아보자



# 꾸란을 알아보자







터키 종교부 출판사: 1311  
아동도서: 128

꾸란을 알아보자

글  
오스만 외즈바으체

그림  
다으스탄 체틴카야

편집장  
메흐메트 에르도간

시각디자인  
알리 푸알 사루한

번역  
장후세인

교정  
이명지

코디네이터  
을드라이 카풀란

그래픽 디자인  
우우르 알툰토프

종교부 최고위원회 인증  
09.05.2016/21

2017-06-Y-0003-1311  
ISBN: 978-975-19-6703-9  
인증번호: 12931  
초판 2017년

인쇄  
Gökçe Ofset  
+90-312-397-1617  
© 터키 종교부

종교출판 총국  
외국어 및 터키어 방언 간행부

주소

Üniversiteler Mah. Dumlupınar Bul.  
No: 147/A Çankaya  
ANKARA / TURKEY  
전화: +90-312-295-7281  
팩스: +90-312-284-7288

이메일: [yabancidiller@diyanet.gov.tr](mailto:yabancidiller@diyanet.gov.tr)

## 머리말

앗쌀라무 알라이쿰, 어린이 여러분!

알라께서는 인간을 올바르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시기 위해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сал람)를 통해서 꾸란을 보내주셨습니다. 꾸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꾸란을 통해 우리는 알라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알라께서 우주와 모든 만물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라를 어떻게 숭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착한 행동은 열심히, 나쁜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회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꾸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집니다.

이 책은 또한 알라의 말씀인 꾸란이 인간과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삶에 대한 진리와 예언자들의 헌신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알라께서는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сал람)를 우리의 인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언자께서는 23년에 걸쳐 사람들에게 꾸란을 전달하시어 온 인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알라를 많이 사랑하지요?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한 몸과 행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잘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알라께서는 그 분의 말씀인 꾸란을 공부하는 어린이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 책은 어린이 여러분이 꾸란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꾸란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에게 꾸란을 소개하고 꾸란의 아름다움을 전해줄 거라고 믿어요.

꾸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꾸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린이 여러분의 영혼과 성품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알라께서 마련해주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여러분들을 알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터키 종교부

# 꾸란을 알아보자



터키 종교부

양카라 - 2017

# 차례

제1장 인간, 가장 훌륭한 피조물	9
예비된 손님들	9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 떠오르는 태양	10
현세의 삶은 여행	12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13
종교는 행복으로 가는 길	14
예언자들: 아담에서 무함마드까지	15
꾸란 이전의 성서들	16
꾸란	18
읽어봅시다: 꿀벌이 직접 설명하는 ‘꿀벌의 장’	19
제2장 우리의 성서를 알아보자	23
한 천사가 내려와 그 분에게 ‘읽어라!’고 말했다	23
꾸란이 지닌 아름다운 이름들	23
하나씩 하나씩 내려온 꾸란 구절들	24
모든 일은 ‘비쓰밀라’로 시작한다	26
꾸란의 각 장(Surah)과 그 이름	27
꾸란 장 중에서	28
장미꽃으로 나뉘는 꾸란의 부(주즈)	30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영원하다	30
하피즈(Hafiz): 걸어다니는 꾸란	31
하팀(Hatim):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32
서예: 예술로서의 꾸란	33
꾸란을 아름답게 읽는 법	33
꾸란의 영향력	34
꾸란은 터놓고 옳은 말을 하다	35
인류를 빛으로 이끄는 꾸란	36
읽어봅시다: 개미가 직접 설명하는 ‘개미의 장’	38

## 제3장 꾸란의 내용들 43

꾸란의 주요 내용	43
꾸란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 믿음에 대하여 가르친다	44
꾸란은 우리에게 알라를 향한 경배행위를 가르친다	46
꾸란은 우리에게 기도드리는 방법을 가르친다	48
꾸란은 우리에게 도덕성을 가르친다	48
꾸란은 우리에게 할랄(Halal: 허용된 것)과 하람(Haram: 금지된 것),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가르친다	50
꾸란은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54
꾸란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다	54
어린이들에 관한 꾸란 말씀	57
읽어봅시다: 거미가 직접 설명하는 ‘거미의 장’	59

## 제4장 꾸란 속 이야기들의 교훈 63

최초의 인간, 최초의 예언자	63
노아(아랍어: 누흐)의 방주	68
불 속의 장미 정원	70
아름다움 중의 아름다움: 요셉(아랍어: 유수프)	76
물에서 건져진 아기: 예언자 모세(아랍어: 무사)	80
철 공예가: 예언자 다윗(아랍어: 다우드)	84
새들과 소통하는 예언자: 솔로몬(아랍어: 솔레이만)	84
말하는 아기: 마리아의 아들 예수(아랍어: 이사)	86
꾸란: 계시의 본질	87



# 제1장

## 인간, 가장 훌륭한 피조물

### 예비된 손님들

우리 지구는 오랜 시간을 거쳐 인간, 즉 알라에 의해 예비된 손님들을 위해 준비되었어요.

지구는 태양의 행성으로서 태양 주위를 돌기도 하고, 스스로 회전하기도 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는 우리 인간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예요. 지구의 자전은 밤과 낮을, 공전은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아주 세심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그 거리가 지금보다 가까웠다면 지구 위의 모든 것들은 타 버렸을 것이고, 반대로 멀었다면 꽁꽁 얼어붙었겠지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는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줘요.

이렇듯 지구는 인간의 지상에서의 삶을 위한 터전으로서 창조되었어요.

“참으로 우리는 인간을 가장 훌륭한 형상으로 창조하였느니라.”

(95장 4절)



“인간의 목에 있는 혈관보다 내가 더 인간에게 가까이 있노라.”

(50장 16절)



“알라께서는 너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니라.”

(57장 4절)



“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구별케  
하셨으며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바다를  
달리는 배들을  
두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죽은  
땅을 재생하시며  
그곳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퍼뜨리셨고 바람을  
두시매 구름은  
천지에서 알라의  
운용에 순종하나니  
이것이 바로 이성을  
가진 자를 위한  
증표이니라.”

(2장 164절)

지구는 알라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창조할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꾸며졌지요.

지구의 모든 것은 곧 찾아올 인간의 필요에 맞게끔 세심하게 준비되었기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후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인간이 창조되어 이 아름다운 지구로 내려왔어요.

인간은 걸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의지가 있고, 감정을 느꼈으며, 사고하고 말할 수 있었어요.

창조주께서는 이들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분께서 인간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 떠오르는 태양

우주에는 단 한 분의 창조주가 존재하며, 그 분을 우리는 “알라”라 합니다. 태초에는 오직 알라만이 존재하셨고 그 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알라께서는 온 우주와 행성, 별, 달과 태양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알라께서는 온 세상을 오직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산과 평원, 바다와 강으로 꾸미셨지요. 바람과 흙, 물과 공기를 만드시고, 빛과 색, 소리를 만드셨습니다. 숲 속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골고루 만드시고, 색색의 꽃과 식물을 만드시고, 푸르디 푸른 담쟁이 덩굴을 만드시고, 개미부터 코끼리까지 모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알라께서는 동물 중 일부는 발 없이, 일부는 네 발로 걷게끔, 또 일부는 수많은 발을 쓰게끔 만드셨습니다.

새들에게는 날 수 있게 날개를 주셨고 물고기들에게는 헤엄칠 수 있게 지느러미를 주셨어요. 꿀벌들에게는 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즉,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 알라께서 “있으라” 말씀하셨기에 모든 것이 탄생했습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 떠오릅니다. 아침은 우리를 위해 옵니다. 강들은 우리를 위해 흐르고 꽃들은 봄마다 우리를 위해 피어요. 새들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알라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이토록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알라께서는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각색의 식물에 갖가지 동물, 색색깔의 꽃과 다양한 맛의 과일들까지... 모든 것에 서로 다른 아름다움과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능력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기에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인간은 그보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존재를 위해 마련된 것이지요. 알라께서는 인간을 모든 존재 중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無)에서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손과 발, 눈과 귀를 베푸시고 한 부모로부터 낳으신 알라를 믿어요. 그 분께서는 홀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세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창조하셨어요. 알라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누군가를 낳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 분에게는 아들이 없으며 아들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예

실로 그 분께서 무엇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느니라.”

(36장 82절)



“너희는 가장 자비로 우신 분의 창조물에서 어떤 결함도 보지 못할 것이니라.”

(67장 3절)



“그 분은 너희를 위해 밤과 낮, 태양과 달을 주셨도다. 모든 별들이 그 분의 명에 복종케 하니 실로, 여기에 분별 있는 백성을 위한 명백한 증표가 있노라.”

(16장 12절)



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와 꾸란을 통해서 알라의 존재하심과 유일하심, 그리고 어떤 동반자도 없으며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현세의 삶은 여행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여행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씩 자라나고, 성숙하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죽고, 현세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어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알라께서 베푸신 이성을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알라께서 이성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제멋대로 행동하게끔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성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현세의 삶에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인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 세상은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는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인도자 외에도 인간을 바른 길에서 끌어내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알라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흐리기 위해 악덕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려고 나쁜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알라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사악함으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시므로 이에 대항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들께서는

\* 뜻 : 그 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실로 알라의 종교  
는 이슬람이니라.”

(3장 19절)



“하늘과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분 안에 있어 모든 것  
이 그 분께 순종하노  
라.”

(30장 26절)



인간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알라의 종교를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이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이 세상은 물론이고 저 세상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알라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과 우리를 그저 재미삼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알라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우셨어요.

알라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성, 즉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정의로움과 자비심

“각 민족에 예언자가  
파견되었느니라.”

(10장 47절)



꾸란에 이름이  
언급된 예언자들은  
다음과 같다.  
아담, 이드리스(녹),  
누호(노아),  
후드, 쌀리흐  
이브라힘(아브라함),

룻,  
이스마일(이스마엘),  
이스학(이삭),  
아굽(야곱),  
유스프(요셉),  
아이웁(욥),  
줄키플,  
슈아이브(이드로),  
유누스(요나),  
무사(모세),  
하룬(아론),

일리아스(엘리야),  
엘야사(엘리사),  
다우드(다윗),  
슬레이만(솔로몬),  
자카리아(스카랴),  
야흐야(요한),  
이사(예수),  
무함마드(그들

모두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도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생명을 지닌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초원의 풀, 새, 벌레, 각양각색의 식물, 색색의 꽃들도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들 역시 우리와는 다른 형태로 나마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생명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창조된 다른 생명들을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알라께서 허락하신 바에 따라 이용해야 해요.

## 종교는 행복으로 가는 길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알라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지요. 알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 그 분과 그 분의 피조물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고 무엇을 했을 때 불행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 역시 그 분이십니다. 알라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전혀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악함과 추함으로부터 보호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지만, 알라께서 인간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알라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가르치고, 훈육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은 고결하고 부지런하며, 바른 말을 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용감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알라의 종교를 가르칩니다.

종교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창조주와 자기 자신, 그 주변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예언자들: 아담에서 무함마드까지

알라께서는 인간을 아무런 인도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예언자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라고도 불리지요. 아담으로부터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들께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는 최후의 예언자입니다. 알라께서는 그 분 아래로 새로운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뿐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들 또한 알라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그들 모두는 인간에게 똑같은 진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인간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알라께서 유일하시니 각기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전달된 종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라로부터 나온 모든 종교를 ‘이슬람’, 모든 예언자들을 ‘이슬람의 예언자’라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그들이 배운 알라의 종교를 변질시켰습니다. 알라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들은 각자가 속했던 사회에서 그 분의 종교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예언자께서 돌아가신 직후 알라께서 보내주신 종교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신앙과 생각을 섞어버렸어요. 그렇게 알라의 종교는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알라께서는 인간들을 일깨우기 위해 새로운 예언자를 보내셨지요. 이러한 일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

꾸란에 언급된 예언자들 외에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예언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 세 명은 다음과 같다. 우제이르(에즈라), 루끄만 그리고 줄 까르나인

이르기까지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진실로 나는  
꾸란을 내렸으며,  
진실로 나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15장 9절)

알라께서 보내신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제공된 종교의 근본이 바뀐다면, 인간들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끝내는 알라의 종교를 잊게 될 것입니다. 알라께서는 인간이 진리를 잊지 않도록 새로운 예언자들을 보냄으로써 선함과 올바름을 끊임없이 일깨우셨어요.

우리의 종교 이슬람은 인간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모두 알라의 말씀인 마지막 성서, 꾸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꾸란은 알라께서 보내신 다른 성서들과는 달리 오늘날까지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어요.

이제 알라께서 보내신 꾸란 이전의 성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꾸란 이전의 성서들

예언자들은 알라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각각의 예언자들은 알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절입니다. 알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보내신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알라로부터 온 소식, 즉 알라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서란 알라의 말씀을 모은 책입니다. 알라께서 인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자 선택하신 예언자들을 통해 보내신 지식들을 모은 책이에요.

알라께서는 몇몇 예언자들과는 성서를, 다른 몇몇 예언자들과는 몇 쪽으로 된 소책자를 보내셨습니다.

알라로부터 내려온 성서로는 토라, 시편, 복음서, 그리고 우리 꾸란까지 총 네 권이 있습니다. 토라와 시편은 유대

인들의 책이고, 복음서는 기독교인들의 책이며, 꾸란은 우리 무슬림들의 책입니다. 꾸란 이전에 내려진 성서들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무슬림들은 “성서의 백성들”이라 부릅니다.

## 토라

예언자 모세(아랍어: 무사)를 통해 전해진 유대인들의 성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서예요. 유대는 종교의 이름이자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들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모세를 통해 전달된 토라의 원본은 보존되지 못했고, 훗날 인간들에 의해 변형되었습니다.

## 시편

예언자 다윗(아랍어: 다우드)을 통해 전해졌으며,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서입니다. 오늘날 시편은 토라의 한 장으로 편입되었는데, 시편이 최초로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시편에는 알라의 명령이나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시적인 형태로 알라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 복음서

복음서는 예언자 예수(아랍어: 이사)를 통해 전달된 기독교인들의 성서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예수 사후 여러 성직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복음서를 써 하나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복음서만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랜



“알라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시느니라.”

(26장 78-80절)

시간 갈등을 겪었고, 때로는 종교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은 이 혼란을 해결하고 성서를 하나로 묶기 위해 예수의 탄생 325년 후 니케아(현 터키 도시 '이즈니크')에서 큰 회의를 개최했어요. 이 회의에서 매우 긴 논쟁 끝에 복음서의 숫자를 넷으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서는 이때 정해진 네 책을 한데 묶어 정리한 것입니다.

## 꾸란

꾸란은 알라께서 인류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내려주신 마지막 성서입니다. 꾸란 이후로는 새로운 성서가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란 말씀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꾸란과 다른 성서들의 가장 큰 차이는 꾸란이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살아 계실 때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예언자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완전히 암송하도록 지도하셨어요.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듯 꾸란은 예언자께서 돌아가셨을 무렵에는 이미 완전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라의 경우는 예언자 모세 사후 700년 후, 복음서의 경우 예수 사후 100-150년 후에야 기록되어 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꾸란은 특정 민족이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 내려졌습니다. 위대하신 알라께서는 꾸란을 세상의 종말 까지 보호하시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꾸란으로부터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습니다.

꾸란에서 알라께서 묘사하신 길을 잘 따른다면 누구든지 알라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라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며 또 가장 사랑받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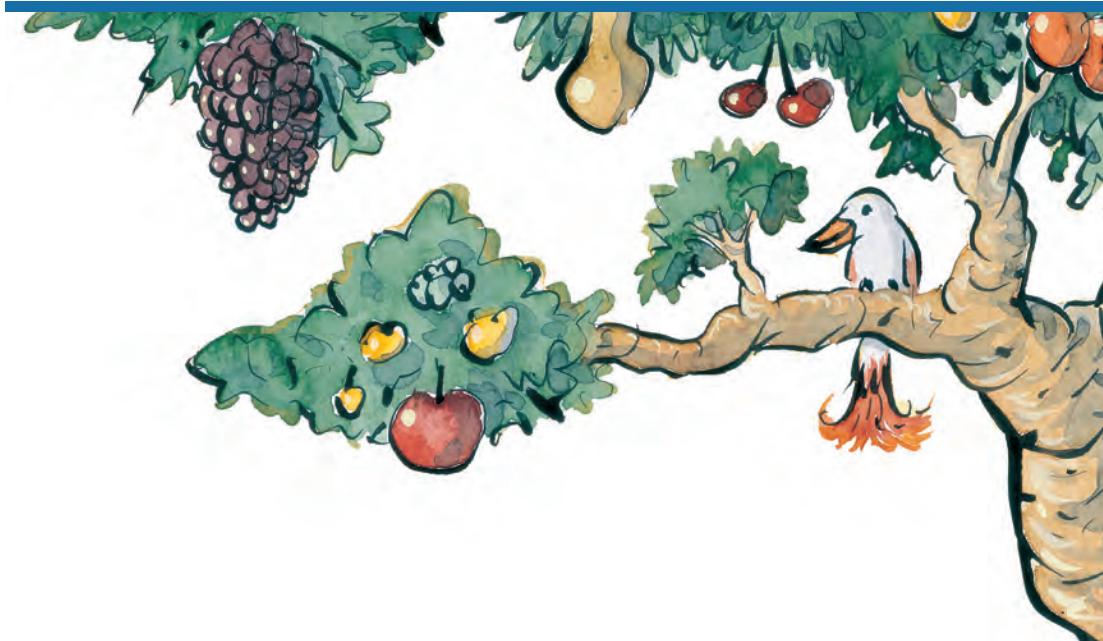
서는 사랑으로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우리 가슴 속에도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알라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라의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어요.

## 읽어봅시다:

### 꿀벌이 직접 설명하는 ‘꿀벌의 장’

저는 아주 작은 꿀벌이에요. 알라께서 창조하신 이 거대한 세상에 있는 수백 만, 수십 억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작은 생명 중 하나이지요.

전지전능하신 알라께서는 인간들에게 전달한 마지막 성서에서 저를 특별히 언급하셨어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도 알라의 말씀에 따라 꾸란의 한 장에 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무척 행복했답니다.



“그대의 주님께서  
별들에게 영감을  
주시니 산과 나무  
그리고 (사람이)  
세운 곳으로부터  
집을 짓게 하셨으니  
모든 과실로부터  
양식을 구하고  
안내된 주님의  
길을 따르라. 그들  
배속에서 다양한  
색깔의 다른 마실  
것들이 나오니 그  
안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유용한  
것이 있으니  
실로 그것은  
숙고하는 백성들을  
위한 커다란  
예증이니라.”

(16장 68-69절)

‘꿀벌의 장’에서 알라께서는 제가 어떻게 벌집을 만드는지, 어떻게 육각형을 짜내는지, 어떻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헤매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꽃에서 화밀(꽃의 꿀)을 모아 꿀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꿀벌들은 알라의 명에 따라 완벽한 기하학적 모양과 수학적 비율에 맞춰 움직입니다. 먼저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밀랍 방을 모아 벌집을 만듭니다. 그런 후 각종 꽃을 찾아다니는 노력 끝에 얻은 화밀을 각자의 몸통에 넣어 꿀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꿀은 벌집의 각 방에 조심스럽게 채워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른 꿀벌 형제들과 함께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것입니다.

알라께서 저희에게 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래로 저희는 달콤하고 치유력이 있는 꿀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답니다. 세상의 끝이 오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할 거예요.

알라께서는 저희를 예로 드심으로써 그 무엇도 목적 없이 창조하시지 않았음을, 세상에 하찮고 쓸모 없는 피조물은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나무, 새, 색색의 꽃, 졸졸 흐르는 강, 하늘에 달린 등잔인 별들을 보며 무한한 권능이 그 분께 속해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의 비할 데 없는 균형을 깨지 않고 모든 생명의 행복을 더해줄 일들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 꿀벌들을 볼 때마다 제 말을 기억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알라의 뜻을 따라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꾸란을 읽어봐야 합니다. 제 이름이 붙은 장만 읽어보아도 많은 내용을 알게 될 거



예요.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제 이름이 꾸란의 어느 장에 붙어 있는지 궁금하지요? 바로 나흘(Nahl) 장이랍니다. ‘나흘’이란 아랍어로 ‘꿀벌’을 뜻해요. 이 장은 꾸란의 16번째 장이며 총 128개에 달하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은 땅과 하늘,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생명들의 아름다움과 조화, 인간에 대한 봉사를 다룹니다.

나흘 장은 인간들이 이 모든 것들에 관해 생각하고 이 세상 오직 한 분이신 알라를 인지하고 숭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끝내 어찌 될지, 꾸란이 내려진 목적이 무엇인지, 이성과 사유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즉, 나흘 장의 주요 주제로는 신앙, 불신, 정의, 선행, 사유, 이성, 신용, 지식, 인내와 경외심 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전쟁 중에도 그 분께서는 군사들과 친우들에게 “절대 동물을 죽이지 말고, 나무와 식물을 상하게 하지 말고, 어린이들과 여성들, 다른 종교일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예배당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에도 절실히 필요한 태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듣자마자 무척 감동받았답니다. 온 세상을 위해 선택 받으신 예언자께서 저희와 같이 작은 생명들의 중요성을 살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바르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것을 권해주시니 어찌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 제2장

# 우리의 성서를 알아보자

## 한 천사가 내려와 그 분에게 '읽어라!'고 말했다

알라께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꾸란의 첫 구절들을 누르 산의 히라 동굴에서 내려주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아랍어 : 지브릴)이 알라끄 장의 “읽으라!”로 시작되는 첫 다섯 구절을 전했지요.

최초의 계시는 예언자의 나이가 40세 때 왔으며 라마단(무슬림들이 단식하는 달) 중 월요일이었어요. 610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은 예언자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계속 된 계시의 시작이었어요. 꾸란의 계시가 시작된 이 밤을 ‘까디르(권능)의 밤’이라고 해요. 매년 라마단 달 이 밤이 오면 무슬림들은 알라께 더 열심히 경배드리며 지새지요.

## 꾸란이 지닌 아름다운 이름들

꾸란은 읽는 것만으로도 알라께 경배 드리게 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꾸란이 낭송될 때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7장 204절)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꾸란은 우리를  
가장 바른 곳으로  
이끄리라.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한  
신앙인들에게는  
큰 응답이 될 기쁜  
소식이로다.”

(17장 9절)

꾸란은 허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옳은 것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푸르깐(Furqan: 규범)’입니다.

꾸란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인류의 길을 비출 ‘누르(Nur: 빛)’예요.

꾸란은 모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줄 ‘시파(Shifa: 치유)’입니다.

꾸란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아갈 길을 보여줄 ‘후다(Huda: 지도)’입니다.

꾸란은 인간에게 창조주와 스스로를 잊지 못하게 해줄 ‘지크르(Dhikr: 염원)’입니다.

꾸란은 전지전능하신 알라의 ‘칼람(Kalam: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알라의 계시인 꾸란이 지닌 별칭입니다.

## 하나씩 하나씩 내려온 꾸란 구절들

꾸란의 모든 문장 각각은 ‘아야트(Ayat: 구절)’라고 합니다. 어떤 아야트는 글자 몇 개에 그치기도 하지만, 어떤 아야트는 한 장 길이이기도 합니다. 꾸란에는 총 6,236개의 아야트가 있어요.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계시되었어요. 어떤 아야트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후 계시되어 그 사건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총 23년이 걸렸는데, 이는 믿는 이들이 알라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암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매일 매일 성장하듯이,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집 한 채가 지어지듯이, 묘목이 서서히 자라나듯이 꾸란도 단계적으로 완성됐어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23년에 걸친 예언자로서의 책무 중 13년을 메카에서, 마지막 10년을 메디나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께서 메카에 계셨을 때 내려진 아야트를 ‘메카 아야트’, 메디나에 계셨을 때의 아야트를 ‘메디나 아야트’라고 해요. 메카 아야트들은 주로 신앙의 본질과 내세에 대한 믿음, 도덕적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반면, 메디나 아야트들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야트(구절)들이 모인 것을 ‘수라(Surah: 장)’라고 해요. 꾸란에는 114개의 수라(장)가 있어요. 수라도 아야트처럼 짧은 것과 긴 것이 모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까라(Baqara) 장은 48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꾸란의 가장 긴 수라(장)예요. 이와 반대로 한 줄로 구성된 수라(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카우사르(Kauthar) 장은 한 줄이지요. 이렇듯 아야트들은 수라를, 수라들은 꾸란을 이룹니다.

## 모든 일은 ‘비쓰밀라’로 시작한다

꾸란의 모든 장들은 단 한 장을 제외하고는 ‘비쓰밀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꾸란을 읽을 때 ‘비쓰밀라’로 시작하듯이 일상에서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비쓰밀라’를 말합니다. ‘비쓰밀라’란 ‘알라의 이름으로’란 뜻으로,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하임(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알라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일을 시작하면 그 분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일을 수월하게 해 주십니다. 식사하기 전, 학교에 갈 때, 공부를 할 때, 잠들 때 늘 ‘비쓰밀라’라고 말해요. ‘비쓰밀라’는 무슬림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게 문을 열 때, 여행을 떠날 때에도 등장하니까요. 이렇듯 ‘비쓰밀라’는 우리 이슬람문

화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 중 하나입니다.

## 꾸란의 각 장(Surah)과 그 이름

꾸란의 각 장(수라)에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어떤 장은 이브라힘(아브라함), 유수프(요셉), 무함마드 등 예언자들의 이름을 따 왔고, 어떤 장에는 나倨(별), 까마르(달), 샴스(태양)처럼 하늘 위의 존재들의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따하, 야씬, 까프, 쇠드 그리고 눈 등의 장은 각 장의 첫 글자나 단어를 그대로 이름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밤 여행), 무자달라(이슬람 이전 시대 한 여인의 이혼 문제에 관한 논쟁), 후주라트(방) 등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삶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산(인간), 나쓰(인류), 니사(여성), 마리암(마리아) 등 인간과 직접 연관된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말하라, 그 분 알라는 한 분이시라고. 영원하신 알라 그 분은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느니라. 어떤 것도 그 분과 대등한 것은 없노라.”

(112장 1-4절)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알라께만 있나이다.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  
심판의 날의  
주재자이신 (그  
분께만 찬미가  
있나이다.)  
(오직) 당신만을  
우리는 숭배하오며  
(오직) 당신께만  
도움을 청하나이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노여움을  
받은 자들의 길이  
아니고,  
또 방황하는 자들의  
길도 아닌,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셨던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1장 1-7절)

끼야마(부활), 나바아(소식) 그리고 타크위르(태양이 은폐됨) 등 내세에 관련된 이름도 있고, 안카부트(거미), 나흘(꿀벌), 나물(개미) 등 동물 이름에서 유래된 꾸란 장도 있어요. 틴(무화과 나무)이란 이름의 장도 있답니다.

## 꾸란 장 중에서

‘비쓰밀라’는 꾸란의 열쇠이며 ‘파티하(Fatiha) 장’은 꾸란의 문이에요. ‘파티하’란 ‘가장 먼저 여는 것, 시작하는 것’을 뜻하지요. 따라서 이 장은 알라의 성서인 꾸란의 개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티하 장은 인간이 찬미를 드릴 유일한 분은 알라이시며 오직 그 분께만 경배를 드리고 도움을 간구해야 함을 강조해요.

우리가 일상 생활과 예배, 기도를 위해 가장 많이 접하는 장이 바로 파티하 장입니다. 알라께 드리는 기도가 끝나면 파티하 장을 읽게 되지요. 만약 가까운 사람 중 누군가 죽게 되면 그 혹은 그녀의 영혼을 위해서도 파티하 장을 읽습니다.

우리가 꾸란에서 파티하 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암송하는 장은 ‘이클라스(Ikhlas) 장’이지요. ‘이클라스’란 ‘성실함’ 또는 ‘진실함’이란 뜻으로, 구체적인 의미는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순수하고 성실한 믿음’이에요. 알라께서는 이 장에서 그 분 자신에 대해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클라스 장은 유일신 신앙의 근본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꾸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장에는 ‘야씬(Yasin) 장’도 있습니다. 야씬은 ‘오, 인간이여!’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장은 꾸란의 심장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금요일 밤이나 묘지를 방문했을 때 많이 읽힙니다. 야씬 장에서는 이슬람 신앙의 원칙들, 알라의 유일하신과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들, 인



간의 창조와 사후의 부활 등의 주제가 다뤄집니다.

‘라흐만(Rahman) 장’ 역시 무척 많이 읽히는 장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은 알라의 아름다운 이름들 중 하나인 ‘라흐만’으로 시작되기에 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라흐만은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 장은 이슬람의 도덕적 원칙, 알라의 유일하신과 권능을 보이는 증거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수없는 알라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 장미꽃으로 나뉘는 꾸란의 부(주즈)

꾸란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아야트(구절)와 수라(장) 외에도 편의상 주즈(Juz: 부)로도 분류되곤 합니다. 한 부는 스무 쪽으로 구성되는데, 새로운 부가 시작될 때마다 여백에 장미꽃 문양이 나타납니다. 이 장미 문양을 ‘주즈 장미’라고 부릅니다. 한 부를 다 읽고 다음 부로 넘어갈 때 장미 한 송 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즉, 꾸란에는 총 30송이의 주즈 장미가 등장합니다.

##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영원하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알라께 계시를 하나씩 받을 때마다 먼저 글을 아는 무슬림들에게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때 꾸란을 기록한 사람들을 ‘계시 서기’라고 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알라의 모든 아야트를 글로 남기는 것이었어요. 예언자께서는 모든 아예트를 이들에게 빠짐 없이 쓰도록 명하셨습니다. 계시 서기로는 아부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자이드 븐 사비트 등이 있었는데, 이분들 덕분에 꾸란은 전혀 왜곡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돌아가시고 (632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슬람의 초대 칼리파(계승자)인 아부 바크르(Abu Bakr)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곁에서 꾸란의 기록을 주로 맡았던 자이드 븐 사비트에게 모든 꾸란 구절을 집대성하여 한 권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차기 칼리파 우마르(Umar)의 제안으로 자이드는 메디나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하였어요. 즉, 하피즈(hafiz: 꾸란 암송자: 꾸란을 입으로 외는 사람)가 암송하고 있던 꾸란 말씀 전부와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여러 재료(양피지, 가죽, 나무판, 낙타 어깨뼈, 매끄러운 돌 등)에 적힌 꾸란 말씀 전부를 모아 한 권으로 만들어 생길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막았어요. 그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꾸란 경전을 소장하게 되었어요.

634년 아부 바크르의 후임자인, 칼리파 우마르는 처음에 만들어진 꾸란 경전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죽을 때 그 분의 딸이자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의 미망인인, 하프사(Hafsa)에게 주었어요.

우스만의 시대는 무슬림들의 영토가 무척 확장되었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무슬림의 숫자가 늘고 이슬람의 토양이 더욱 풍요로워졌지요. 이에 사방으로 꾸란을 보낼 필요가 생기자, 원본을 필사하여 일곱 개의 대도시로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꾸란 역시 이 책의 필사본이랍니다.

## 하피즈(Hafiz): 걸어다니는 꾸란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들을 ‘하피즈(hafiz: 꾸란 암송자)’라고 합니다. 하피즈는 꾸란 전체를 암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걸어다니는 꾸란’이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꾸란의 미덕, 21)



###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슬람은 다섯 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나니;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 분의 사도임을 증언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고, 희사를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는 것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이만 2)



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 있는 꾸란’이라 부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나 꾸란 전체를 암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꾸란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암송하는 것은 ‘아씨르(ashir)’라 하는데, 어른들이 “자 이제 아씨르를 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꾸란의 한 부분을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 하팀(Hatim):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하팀(hatim)’이란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뜻입니다. 매년 라마단이 되면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그때까지 받으신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암송하셨고, 가브리엘 천사도 예언자를 위해 꾸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예언자와 그 분에게 알라의 계시를 전달한 가브리엘 천사가 서로에게 꾸란을 외워준 셈이지요. 이렇게 서로를 앞에 두고 꾸란을 암송하는 것을 ‘무까발라’라고 해요. 무슬림들은 무까발라를 통해 꾸란을 많이 암송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꾸란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보존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러한 훈련은 무까발라를 전통의 일부로서 또 축복받은 성서인 꾸란을 변질시키지 않은 채로 우리 일상의 일부로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는 단식의 달인 라마단 동안 꾸란 전체를 읽는 것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언자와 천사가 서로에게 꾸란을 읽어주던 이 아름다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단식과 함께 꾸란을 완독하는 것이지요.

## 서예: 예술로서의 꾸란

꾸란을 아름답게 기록하기 위해 발달한 예술이 바로 서예(calligraphy)입니다. 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서예가라고 부르지요.

꾸란을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와 도구가 필요하고, 정해진 규칙과 서체를 따라야 합니다. 좋은 서예가가 되려면 이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배워야만 해요. 아름다운 글씨로 쓰인 꾸란을 읽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꾸란은 색색의 페이지와 아름다운 글씨를 자랑지요.

꾸란 뿐 아니라 현판도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판들 대부분에는 알라 혹은 무함마드와 같은 성스러운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가정과 성원의 벽에는 아름다운 현판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서예 예술의 가장 훌륭한 예들은 우리 조상의 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꾸란은 메카에서 내려왔고, 이집트에서 읽히며, 이스탄불에서 쓰였다”라는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 꾸란을 아름답게 읽는 법

꾸란은 이 세상의 모든 책들 중 가장 아름다운 책입니다. 꾸란에 담긴 말씀 또한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슬림들은 꾸란을 되도록 아름답게 읽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기쁨을 얻지요.

초기에는 아랍어로 쓰인 꾸란에 모음기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전 세계로 퍼지고 무슬림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꾸란을 낭송하려 할  
때 저주받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알라  
께 보호를 구하라.”

(16장 98절)

증가하자, 새로 무슬림이 된 형제들이 꾸란을 읽는 법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꾸란에 모음기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랍어가 모국어가 아닌 무슬림들도 꾸란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꾸란을 아름답게 읽는 것은 예술의 일종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송되는 꾸란은 듣는 모든 이를 감동시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읽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란을 되도록 정확하고 아름답게 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꾸란을 읽기 전에 우두(몸의 일부분을 씻는 행위)를 하고, “아우두 빌라하 미낫샤이따니르라짐. 비쓰밀라 히르라 흐마 니르라힘(저는 저주 받은 사탄으로부터 알라의 보호를 구하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을 외칩니다. 그런 후 꾸란을 천천히, 되도록 아름답게 읽습니다. 그렇게 꾸란을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워집니다.

## 꾸란의 영향력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매일 밤 메카의 집 마당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꾸란을 읽으셨습니다. 이슬람을 믿지 않았던 메카 사람들마저도 밤에는 몰래 꾸란을 들으려 왔을 정도로 꾸란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밤, 메카의 명사 세 명이 몰래 예언자의 꾸란 암송을 듣고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무도 꾸란을 듣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셋 모두 서로의 상황을 짐작했지요. 꾸란을 부정하면서 그 암송을 듣고자 몰래 찾

아가는 상황은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누가 볼 수도 있으니 다시는 꾸란을 들으러 오지 말자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다음날 밤, 그들은 참지 못하고 또 꾸란을 듣기 위해 몰래 예언자의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이렇듯, 꾸란은 그것을 부인한 사람들에게조차 영향을 미치는 책이었습니다.

## 꾸란은 터놓고 옳은 말을 하다

꾸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읽는 것이 쉽고, 읽는 법을 배우기도 쉬우며, 이해하기도 쉬워요. 꾸란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하고 쉽게 알려줍니다. 꾸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읽기와 암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와 비슷한 다른 책이 없습니다.

꾸란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통해 설명하며 이야기들 안에는 교훈이 되는 좋은 말씀이 담겨있어요.

일부 꾸란 구절들은 처음 접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구절들의 문학적인 표현 때문입니다. 따라서 꾸란의 은유적, 비유적 구절의 숨겨진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 때 타프씨르(tafsir: 꾸란 주해서)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타프씨르는 우리에게 꾸란을 자세히 해설해주는 책이며 더불어 꾸란을 자신의 모국어로 의미번역한 꾸란 의미번역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꾸란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꾸란의 한국어 의미번역본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꾸란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프시르의 경우 꾸란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어 설명해줍니다. 한 아야트가 무슨 뜻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타프시르를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냥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만 찾아보려면 의미번역본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읽는 파티하 장의 구절 중 ‘알함 두릴라히 랍빌 알라민’이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면 의미번역본을 찾아보세요. ‘모든 찬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알라께만 있나이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타프시르를 보기 를 권합니다.

## 인류를 빛으로 이끄는 꾸란

꾸란은 인류를 가장 올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해요. 꾸란의 인도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은 모든 부당함

과 박해 그리고 인간에게 부적합한 행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것이며, 그들의 행동은 어두운 세상에서 이슬람의 무한한 빛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꾸란의 인도 속에서 인간은 약한 자와 고아, 극빈자의 보호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기 주의적이고 인색한 사람일 지라도 꾸란의 인도를 따른다면 남을 돋고 사랑을 베푸는 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꾸란의 원칙을 실천하는 무슬림들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허용된(할랄) 방법으로만 이익을 추구하며 금지되거나(하람) 부당한 것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의 자리에는 정직함으로, 위선은 진실함으로, 오만과 과시는 겸손함으로, 인색함은 자기 희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꾸란 이전에는 무시 당하곤 했던 여성들도 꾸란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깨닫고 존중 받게 되었어요. 인간은 꾸란을 통해 자녀들이 신의 선물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과거에는 딸이 태어나면 생매장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딸을 임신하면 낙태수술을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자비심을 갖고 대해며 도와야 한다는 것, 그들을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역시 꾸란을 통해 배웠습니다. 노예들 역시 꾸란을 통해 희망의 빛과 자유로의 길을 얻었습니다.

꾸란은 태양처럼 인류를 위한 빛을 줍니다. 꾸란을 통해 어둠은 빛이 되었고, 이에 더해 권리와 법, 신뢰, 평안, 평화, 행복이 왔습니다. 꾸란과 더불어 덕성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꾸란은 사람들에게 악으로부터 정화되는 법을 가르쳤어요.

꾸란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가르쳤어요.

꾸란은 사람들에게 우정과 형제애를 가르쳤어요.

꾸란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르쳤어요.

꾸란은 사람들에게 문명을 가르쳤어요.

## 읽어봅시다:

### 개미가 직접 설명하는 ‘개미의 장’

아시다시피 알라께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에게 꾸란 구절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꾸란은 이 구절들을 모은 것이지요. 꾸란 중 나믈(Naml) 장은 우리 개미들의 조상들과 예언자 술레이이만(솔로몬)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을 알려줍니다.

일단 여러분께 저를 소개해야겠지요? 저는 작은 개미입니다. 알라께서 꾸란에 제 이름을 언급하심으로써 저를 높여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원래 우리 개미들은 알라께서 죽이기를 금하신 동물들 중 하나입니다. 알라께서는 개미집 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것조차 금하셨지요.

이제 다같이 꾸란의 27장인 나믈(Naml: 개미) 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장은 93개의 아야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이슬람 신앙의 기본 원리(유일하신 알라에 대한 믿음과 그 분만을 숭배하는 것의 중요성), 볼 수 없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알라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모든 양식과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 알라인 만큼 그 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 예언자 술레이이만(솔로몬)과 빌끼스 여왕 사이의 사건, 예언자 무사(모세)와 살레, 그리고 롯이 겪었던 일들 등을 언급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와 온갖 종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알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축복들을 떠올릴 때마다 알라께 감사드리게 되어요.

예언자 술레이이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개미들을 소개하고자 해요.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틀림 없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개미들의 사회는 크게 여왕개미, 수개미, 일개미의 세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알고 태어나지요. 여러분처럼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알라께서 우리를 이미 가르치셨기 때문이지요.

저희 개미들의 몸은 무척 조그맣고 약하지만, 알라께서는 저희에게 철저한 분업의식과 섬세한 계산 능력, 협동심, 부지런함과 같은 훌륭한 특징을 부여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처한 삶의 조건은 무척이나 벼겁습니다. 쌀 한 톨을 보금자리로 가져가는 데에만도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알라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수십마리가 모인 집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분께서는 다른 모든 생물에게 그려하셨듯 저희에게 독특한 아름다움과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마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특성을 부여하셨지요.

우리 개미들은 지하에 집을 짓고 수많은 길을 만들어요.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인간들, 때로는 빗물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빗물에 빠지는 순간 숨이 막혀 죽게 되거든요. 게다가 어떤 인간들은 의도적이든 모르고서든 우리를 밟아 으깨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걸을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언자 솔레이만 이야기를 시작하겠어요. 알라께서는 많은 피조물들이 예언자 솔레이만을 돋도록 하셨어요. 바람은 그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새들은 그를 위해 정보를 모으고, 산들은 그와 함께 알라를 떠올렸지요. 그밖에도 다른 많은 피조물들이 그를 도와주곤 했어요. 알라께서는 솔레이만에게 예언자의 책무를 부여하심과 동시에 깊은 지식, 왕으로서의 지위, 온갖 보물, 새들과 다른

“그들이 개미의  
계곡에 이르렀을 때  
한 마리의 개미가  
말하길 개미들아  
술레이만(솔로몬)과  
그의 군대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을  
짓밟아 죽일지도  
모르니 우리들  
거주지로  
들어가자 하더라.  
술레이만은 개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  
며 말하길 주여  
저와 저의 부모에게  
베풀어 준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기뻐하는  
선행을 하도록 하여  
주셔서 당신의  
은혜로서 당신의  
성실한 종들  
중의 한 종이 되게  
하여주소서.”

(27정 18-1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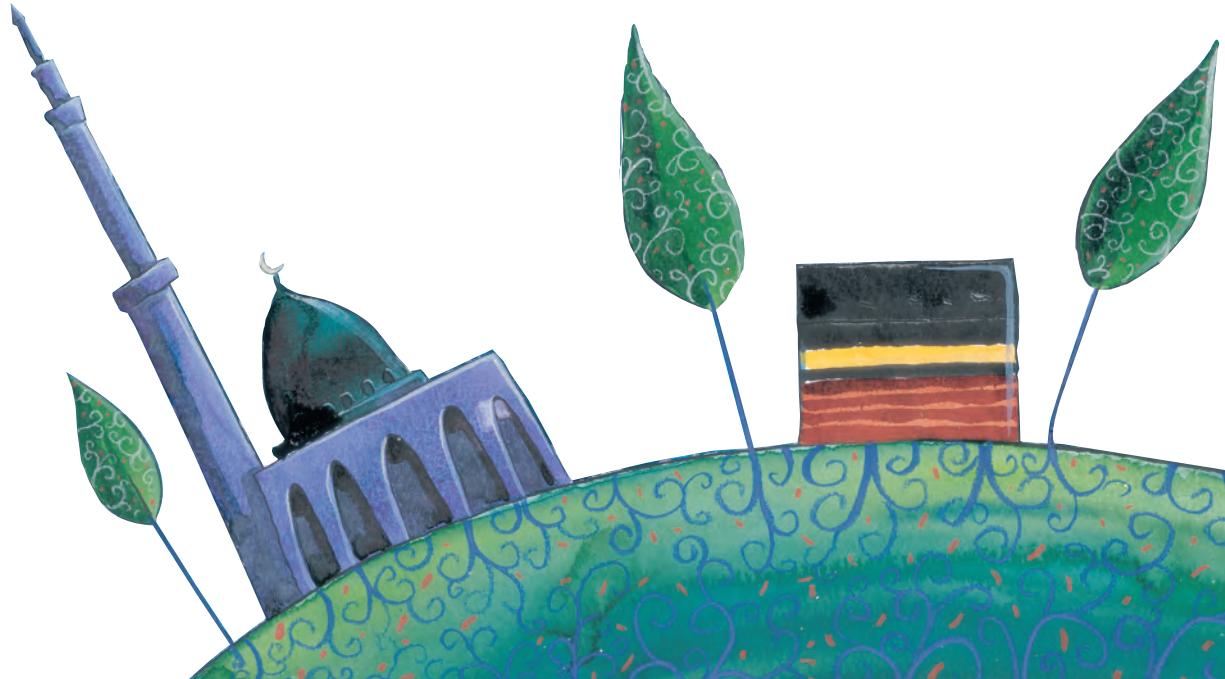




동물들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 등을 베푸셨어요. 술레이만은 이러한 우수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능력들이 알라께서 베푸신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언자 술레이만은 길을 걸어갈 때 개미들을 밟지 않도록 주의할 정도로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예언자 술레이만은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알라께 기도드렸어요. 자비로우신 알라로부터 사랑을 얻고자 바른 일을 할 기회와 힘을 주시기를, 자신과 가족을 천국의 선한 종들 사이에 두시기를 바랐지요.

‘개미의 장’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알라께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는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니, 인간에게 다른 모든 생명들을 해칠 권리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개미, 꿀벌, 새, 거미 등등을 인식하고 그들과 이 지구를 공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제3장

# 꾸란의 내용들

### 꾸란의 주요 내용

꾸란의 주제는 알라와 인간입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알라와 인간, 피조물들과 종교적 의무를 가르쳐줍니다. 또 꾸란은 알라, 우리 자신, 부모님, 가족, 온 인류 그리고 다른 생명들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조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요. 꾸란은 모든 면에서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이끌며, 알라와 그 분의 마지막 예언자를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꾸란에는 신앙, 경배행위, 도덕적 원칙들과 더불어 음식, 결혼, 경제 및 사회관계 등 인간 삶과 사회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교훈을 주고자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와 과거에 존재했던 민족들이 겪은 몇몇 사건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알라를 경배하되 다른 것과 비유하지 말라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람들과 이웃 친척과 친척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동료와 방랑자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종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알라께서는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4장 36절)

## 꾸란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 믿음에 대하여 가르친다

“오, 믿는 자들이여!  
 사람이 사람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여성이 여성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중상하지 말 것이며  
 저속한 변명도  
 사용하지 말라 믿음  
 이후에 대놓고 죄를  
 범하는 것은 몹시  
 부끄럽고 나쁜  
 일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 실로 그는  
 죄인이니라.”

(49장 11절)

꾸란은 가장 먼저 인간을 믿음의 세계로 불러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가르쳐줍니다. 꾸란이 알려주는 신앙의 기본 믿음 중 첫 번째는 알라의 존재하심과 유일하심이에요. 그 다음은 알라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그 분께서 계시하신 성서들, 예언자들, 최후의 심판의 날,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즉, 정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알라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알라와 그 분께서 알리신 신앙의 기본 믿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꾸란은 인간을 이슬람으로 불러들이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될지를 설명합니다. 동시에 꾸란은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차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예들이 이를 뒷받침하지요. 꾸란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타우히드(Tawhid)’, 즉 알라의 유일하심입니다. 이는 알라를 알고 오직 그 분만을 승배하며 그밖의 무엇도 그 분과 같은 힘을 지니지 않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해요. 유일성의 원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을 승배해서는 안 되며 우상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돌 둉어리를 승배하고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인간은 알라의 권능을 알아야만이 자신의 소망을 더욱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타우히드는 그야말로 꾸란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라의 존재와 유일하심을 무시하는 행

동을 한다면 그의 신앙심에는 큰 타격이 올 거예요. 심장이 멈춘 인간이 사망하듯이 약해진 신앙심은 시간이 지나면 아예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슬람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알라께서 금하신 것과 사악한 것을 멀리해야 하고, 그 자리를 바르고 유익하며 의로운 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우리의 종교에 어울리는 적절한 실천이 되겠지요.

인간은 믿음을 실천하면 할수록 더욱 아름답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만큼 사악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신앙심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꾸란이 인도하는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꾸란은 읽는 이를 자연스럽게 주변에 신경을 쓰는 무슬림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바른 사람이 되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꾸란은 지금의 삶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우리 모두가 사후에 부활할 것이고 내세에서 각자가 현세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일종의 경고이지요. 한편, 꾸란은 알라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이 주어질 것임을 보장해요. 이렇듯 우리는 꾸란을 통해 현세의 삶은 일시적이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함을 알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현세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에 결맞은 보상이나 처벌을 받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꾸란은 우리에게 내세의 삶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사탄의 뒤를 따르지  
말라 사탄의 뒤를 따  
르는 자에게 사탄은  
그로 하여금 항상 죄  
악과 비행을 범하도  
록 하느니라.”

(24장 21절)



## 꾸란은 우리에게 알라를 향한 경배행위를 가르친다

“알라께서 정의와  
선을 실천하라  
명령하셨노라  
친척에게는  
자선을 베풀라  
하셨으되 추한  
언행과 사악함과  
범죄를 금하시노라  
너희에게 늘  
생각하고 주의하라  
이르시어 교훈을  
주셨도다.”

(16장 90절)

꾸란은 알라께 경배 드릴 것을 명하며, 경배의 기본 원칙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꾸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지, 또 알라께 경배를 어찌 드릴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은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이십니다. 예언자께서는 무슬림들에게 행해야 마땅한 행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배 뿐 아니라 모든 종교적 규범을 그 분으로부터 배운 것이나 다름 없지요. 그 분의 삶과 행동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예언자께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시오”, “성지순례와 관련해서는 내가 행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우리가 매일 행하는 경배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알라께 연결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배는 청결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두(wudu: 몸의 일부분을 씻는 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하루 다섯 번 카아바를 향해 예배하는 것은 인간을 사악함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단식은 1년에 한 번, 라마단 동안 행합니다. 단식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무척 이롭습니다.

희사는 재물과 관련된 경배행위로, 부유한 무슬림들의 의무입니다. 부유한 이들은 매년 재산의 일정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여 사회통합이 가능하게 되지요.

성지순례 역시 건강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무슬림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이들은 일생에 한 번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배출한 메카의 카아바와 그 주변의 성지를 규칙에 따라 순례해야 합니다. 지상의 모든 무슬림들은 언어와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함께 자비로우신 알라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외에도 자선, 희생 등 다른 행위들 역시 경배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돋는 것 역시 알라께 경배를 드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들어 가는 꽃에 물을 주는 것, 배고픈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 날개를 다친 새를 치료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든 생명은 알라께서 만드셨기에, 우리 또한 알라의 피조물들을 알라를 사랑하듯이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경배를 드립으로써 창조주 알라께 가까워집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자야 하듯이 영혼도 끊임없이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알라께 경배함으로써 채울 수 있지요. 경배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경

  
“오,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부모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 날에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14장 41절)

“알라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씀하셨노라.”  
(46장 15절)

배는 우리의 신앙심을 키우고 영혼을 북돋웁니다. 알라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주는 행위입니다.

## 꾸란은 우리에게 기도드리는 방법을 가르친다

꾸란에는 아주 아름다운 두아(dua: 기도)들이 있습니다. 알라께서는 꾸란을 통해 그 분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십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도문이 있지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알라께 우리에게 주신 무수한 축복에 대해 감사드려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기도를 드려 그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자비로우신 알라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면에서 우러나온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신앙심의 정수로, 알라와 인간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주지요. 알라께서는 우리 마음 속 모든 비밀들을 다 아시므로 우리가 가장 약해지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앞의 장애물을 제거해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분께서는 인간들이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자비로우신 알라께 가슴 속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알라께서는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살피십니다.

## 꾸란은 우리에게 도덕성을 가르친다

꾸란은 도덕적 원칙들을 설파하고 이에 맞는 행동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친척들과 가난한 이와 곤경에 처한 이를 돋는 것, 낭비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신뢰를 얻는 것, 나쁜 행동을 피하는 것, 고아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그 누구의 생명과 재산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사랑, 존경, 형제애, 평등, 올바름, 공정함, 권리와 정의를 지키는 것,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자세, 협동, 융화, 성실하게 일을 하는 태도, 부지런함, 관용 등의 귀중한 도덕적 원칙들은 인류를 현세 및 내세에서의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알라께서 주신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 항상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정숙하고 겸손한 것 역시 꾸란에서 가장 강조되는 도덕적 원칙에 해당합니다.

꾸란이 가장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는 정의로움입니다. 정의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알라께서는 종교, 언어, 민족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인간들 간에 정의롭게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슬림들은 이 경고를 따라 언제나 다른 종교나 민족에 속한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공존해 왔어요. 우리 조상들 치하에 살았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개종하라는 권유나 종교에 의한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은 도덕성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인간은 알라와 그 분의 예언자를 믿으며 믿음을 실천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거짓, 날조, 사기, 오만과 무시, 욕설 등의 추악한 행동을 멀리하라 합니다. 이렇듯 꾸란은 인간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대의 주님께서 명하시길 그대들은 오직 그 분만을 경배하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살아 있는 동안 부모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둘에게 짜증섞인 목소리를 내지 말며 그 둘을 질책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둘에게 명예로운 말을 하라.”  
(17장 23절)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알라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알라께 다해야 할 책무는 그 분을 경배함으로써, 타인들에 대한 의무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다할 수 있습니다.

## 꾸란은 우리에게 할랄(Halal: 허용된 것)과 하람(Haram: 금지된 것),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가르친다

꾸란은 알라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허용된 것과 선은 추구하고 금지된 것과 악은 멀리하도록 권하는데, 이는 알라께서 허용하신 것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지만 금지하신 것들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이지요.

꾸란은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꾸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오직 할랄(Halal: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합니다. 돼지고기나 죽은 짐승(목 졸라 죽인 것, 때려서 잡은 것, 떨어져서 죽은 것, 서로 싸워서 죽은 것 등)의 살은 하람(Haram: 금지된 것)이며, 알코올이 든 음료나 중독성 물질도 피해야 합니다. 부패, 도둑질, 협잡, 고리대, 도박, 뇌물, 강탈과 같은 부당한 방식의 소득은 큰 죄가 됩니다.

꾸란은 모든 인간들에게 선행을 권합니다. 억압과 부당한 행위, 남의 결함과 부족함을 꼬집고 조롱하는 행위, 남을 무시하고 중상하는 행위 그리고 나쁜 별명으로 상대방을 부르는 행동을 금합니다. 이렇게 꾸란은 무슬림들이 깨끗하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 인류의 모범이 될 사회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실로 알라의 예언자에게는 그대들을 위한 훌륭한 모범이 있으니라.”

(33장 21절)

꾸란은 자기 자신과 이웃, 주위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권장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리며 항상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까운 이들부터 차근차근 어려운 사람들 을 도와 나가기를 명합니다.

## 꾸란은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꾸란은 사회생활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해요. 특히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끔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친척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도와 함께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 꾸란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다

꾸란은 우리에게 가족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꾸란은 친척을 아끼고 그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내야 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서로 서로를 도우면 고통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두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알라께서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민족이나 피부색, 외모와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월성은 알라 앞에서 그 분의 사랑을 얻고 그 분께 거역하는 이들을 경계하고 그 분과 가까이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은 인류에게 눈물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꾸란에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살해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꾸란은 홀로 고립되어 가정을 꾸리지 못한 이들을 돋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돋는 것은 우리 인류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모두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꾸란은 우리에게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 태양과 비, 머리칼에 스치는 바람을 사랑합니다. 흐르는 강과 색색의 꽃, 소소한 들꽃과 나비,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창조주 알라와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인 인간임을 되새기게끔 합니다.

꾸란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형상으로 창조하신 알라를 사랑할 것을 명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만들 어졌음을 기억하지요?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알라를 우

“그러나 아이들이  
이성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을  
때는 성인들이  
허락을 받듯이  
그들로 하여금  
허락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알라께서는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실로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노라.”

(24장 59절)

리 역시 사랑합니다. 인간에게 지식과 사랑을 가르쳐주신 꾸란을 사랑합니다.

꾸란은 어린이들은 사랑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자라납니다. 특히 아기들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존재이지요. 물과 흙이 꽃들을 피워내듯이, 어린이들도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꾸란은 홀로 남은 고아들을 더욱 신경 써서 보살피고 사랑해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기들은 깨끗하고 죄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꾸란은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 이릅니다. 아기의 탄생은 하나 같이 알라께서 보내신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아기의 탄생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주변의 모두를 위한 기쁨이자 빛입니다. 꾸란에 의하면 아기들은 현세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줍니다. 아기들은 자비로우신 알라의 섬세한 예술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면 예배마저 서둘러 마치셨고, 무릎에 앉히셔서 “아이들은 천국의 향기로다!”하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슬퍼하는 것을 참지 못하셨으며, 특히 고아들의 슬픔에 더욱 마음 쓰셨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아이들과 마주 치시면 항상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셨지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뺨에 입맞춰 주시고, 등을 두드려주시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고통에 무척 가슴 아파 하셨지요.

이렇듯 어른들은 예언자와 그 분께서 전하신 꾸란을 통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 어린이들에 관한 꾸란 말씀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종교를 따르라 했으며 야곱도 그랬도다. 실로 알라께서 너희를 위해 신앙을 선택하여 주셨나니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일생을 마치라. 야곱이 죽음에 이를 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내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라고 물으니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예언자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인 알라만을 경배하며 그 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라 대답하더라.” (2장 132-133절)

“루고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하사 아들아! 알라를 불신하지 말라. 실로 알라를 불신함이 가장 큰 죄악이니라. 알라는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늘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가지고 이 년 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약하여 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내게로 옴이 최후이니라. 그러나 부모가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케 하여 나를 불신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현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게로 향해 회개하는 자의 길을 따르라 그후 너희는 내게로 귀의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일들을 알려 주리라.

나의 아들아! 겨자씨 만큼이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돌속에 있던 하늘위에 있던 깊은 땅속에 있던간에 알라는 그것을 들추어 내시거늘 실로 알라는 세심히 아시는 분이시니라.

나의 아들아! 예배를 드리라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며 네가 겪는 모든 것에 인내하라 이것은 실로 용기가 필요한 것 이니라. 그리고 너의 얼굴을 돌려 사람들을 경멸하지 말 것이며 걸음을 걸을 때면 거만하지 말라.

“알라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비유하사 스스로를 위해 집을 짓는 거미와 같나니 가장 허약한 집이 거미의 집임을 너희는 알 것이라.”

(29장 41절)



실로 알라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사랑하시지 아니하니라. 걸을 때는 겸손하고 너의 목소리를 낮추어라 가장 증오스러운 목소리는 당나귀 같은 소리라.” (31장 13-19절)

## 읽어봅시다:

### 거미가 직접 설명하는 ‘거미의 장’

저는 작은 거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얼굴을 찡그리지는 마셔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좋아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테고, 심지어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러나 알라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무의미하고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잊지 마세요. 그 분께서는 꾸란에서 저에 관해 말씀을 남기셨고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통해 꾸란의 29장 제목에 제 이름(안카부트: 거미)을 붙이셨어요. 여러분께 간략하게 거미의 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거미의 장은 총 69개의 구절로 구성됩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알라에 대한 믿음, 부모님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겪을 고통스러운 최후, 믿고 바른 일을 행한 이들이 얻을 커다란 은총과 축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예배가 악행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준다는 점, 알라를 기억하는 행위가 아주 중요한 경배라는 점, 인간이 평안을 누릴 때 알라를 떠올리고 그 분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됩니다. 더불어 모든 생명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점, 거짓말의 사악함, 우리 모두는 다만 각자의 죄를 책임지게 될 것이란 점 등을 알려줍니다. 또 이 장에서는 예언자들 중 노아, 아브라함, 롯, 슈아이브와 후드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이 장에 하필 제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이 장의 마흔 한 번째 구절에 거미집의 비유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미집은 진리 앞에서 허약하고 얕은 가짜 신앙심을 뜻합니다. ‘안카부트’는 ‘암거미’란 뜻인데, 암거미는 집을 지을 때 자기 짹을 잡아먹습니다. 나중에는 거미 집에 걸린 파리나 곤충을 함정에 빠뜨려 먹어 치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미들이 만드는 집은 우리에게는 아주 튼튼한 셈입니다. 실제로 거미줄은 같은 굵기의 다른 섬유에 비해 더 튼튼합니다.

우리 거미들은 집을 짓기에 앞서 집의 위치를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따져봅니다. 거미집은 우리에게는 침대이자 교통수단, 경고 체계이자 방어막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거미집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튼튼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부



의 힘에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약한 것입니다. 바람이나 아주 작은 손짓에도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언급된 사건들의 교훈은 거미집이 주는 교훈과 비슷한 셈입니다. 그렇기에 거미의 비유가 이 장 전체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거미가 짠 집이 무척 약하듯, 알라가 아닌 것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또한 무척 약한 지지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대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권력은 지상의 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재산과 권력을 가장 중요한 힘으로 간주하고, 이를 추구하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로울 것이 없는 지식을 쫓고, 어떤 이들은 폭력이 모든 것에 앞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진실로 보호해줄 수 있는 힘은 알라의 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알라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약하고 가느다랗기 그지없는 거미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 분의 우정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겉보기에 얼마나 강하든 간에 알라 앞에서는 그저 거미집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알라께서 스스로를 신이라 여긴 니므로를 모기 한 마리로 멸하시고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를 죽이기 위해 그 분이 계신 동굴 입구까지 칼을 들고 숨어든 인간들을 거미 한 마리로 착오하게 만드셨음을 모르는 걸까요? 설령 들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믿지 않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지요.

내친김에 여러분께 저를 무척 기쁘게 했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할까봐요. 저는 사실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께서 메카로부터 메디나로 이주하실 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거미랍니다. 알라께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와 그 길동무 아부 바크르를 보

호하시기 위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더욱 기뻤던 것은 제가 예언자의 빛나는 얼굴을 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과 지냈던 사흘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라만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닥칠 모든 위험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분보다 더욱 위대하고 진정한 분은 없으니, 자비로우신 알라께 도움을 청하셔요.

## 제4장

# 꾸란 속 이야기들의 교훈

### 최초의 인간, 최초의 예언자

알라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브(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서로의 짜이 되게 하셨고 서로의 이름을 각자에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모든 사물들에 대해 인지하고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셨지요. 아담은 예언자의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인류는 모두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다양한 언어와 민족을 형성해 나갔어요. 흑인과 백인 모두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머리카락 색과 관계없이 모두가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에요. 외모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하나의 심장, 두 개의 손발을 지녔어요. 두뇌는 단 하나씩이지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꾸란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꾸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 그 수가 늘어나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지상의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책 덕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알라께서는 아담 이전에 천사들과 진\* 들을 창조하셨어요. 알라께서 천사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실 것임을 알리자 그들은 그 분께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의 영광을 바랍니다. 저희는 다만 당신께서 창조하실 인간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당신께 불복종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자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분 자신과는 달리 그들 천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진흙으로부터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알라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태양, 바람, 흙, 꽃 그리고 새 등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려주셨지요. 그 분은 아담에게 창조된 모든 것들의 이름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천사들에게는 이러한 지식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라께서는 아담과 그 자손들을 다른 모든 창조물들보다 우수하게 창조하셨어요. 알라께서는 아담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아담이 모두 답했을 때, 모든 천사들은 알라의 명에 따라 아담에게 절하고 그의 우월함을 인정했습니다. 오직 사탄만이 알라의 명을 거부하고 아담의 우월성을 부정했어요. 사탄은 자신은 불에서 창조되었지만 아담은 진흙에서 창조되었으므로 아담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불과 진흙 모두 알라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어찌하여 불이 진흙보다 우월할까요? 아담은 진흙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알라에 의해 이성과 의지를 받았기에 우월합니다.

---

\* 진(Jinn)은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지닌 창조물로서, 인간은 진흙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천사는 빛으로부터, 그리고 진은 불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알라를 믿는 진도 있으며 믿지 않는 진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진의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알라께서는 자만한 나머지 알라를 거역하고 인간을 무시한 사탄을 심판의 날까지 저주하셨습니다. 알라께서 심판의 날까지 속죄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신의 실수를 사죄하는 대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사람이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맹세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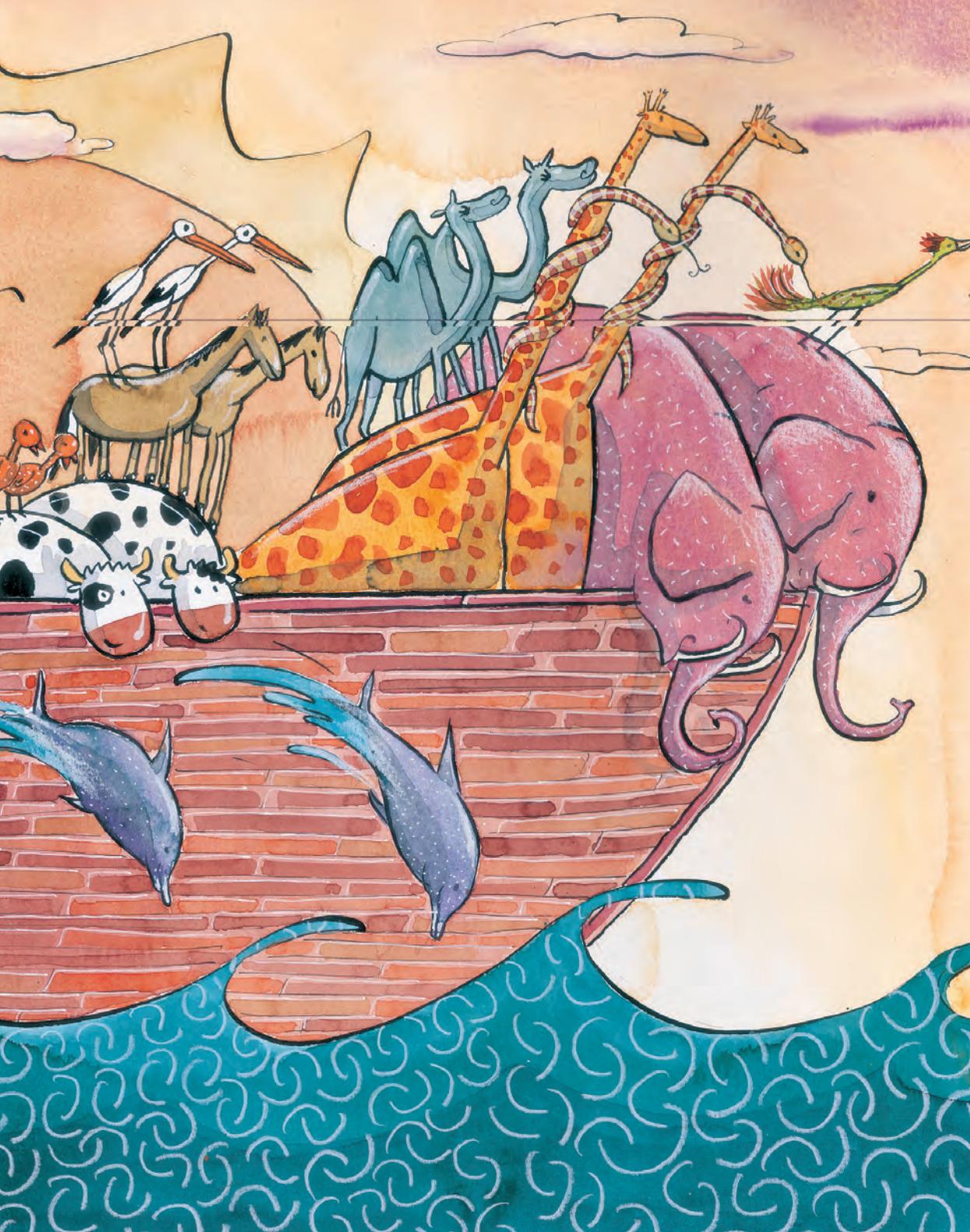
알라께서는 아담 후에 이브를 창조하셨고 그녀를 아담의 동반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후 그들을 천국에 거주하도록 하셨는데, 천국의 나무들 중 어느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기를 금하셨어요. 또한 인류의 적인 사탄을 멀리하도록 경고하셨지요.

사탄은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다면 불멸할 것이라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열매를 먹은 후에야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였으며, 자신들도 사탄처럼 영원히 지옥에 머무르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알라께서는 그들이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한 후 그들을 지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지상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손을 원하자, 알라께서는 그들에게 수 많은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아담은 알라의 선택으로 자신의 자손들을 위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알라께서는 그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보호하셨지요.

아담의 아들들 중 아벨과 카인이란 이름의 두 형제는 알라께 각자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지만 카인의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에 사탄이 카인의 가슴에 동생을 향한 증오와 질투를 불어 넣었고, 마침내 카인





은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로 지상에 피가 흐른 순간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살인을 몹시 흡족하게 여겼으며, 카인은 동생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어요. 때마침 까마귀 한 마리가 발로 흙을 파낸 후 죽은 까마귀를 묻는 것을 보게 된 카인은 까마귀가 한 것처럼 땅을 파내 동생의 시신을 묻었어요. 이 이후로 죽은 사람들은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아담도 나이가 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땅에 묻혔지요.

예언자 아담은 알라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며,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는 최초로 옷을 입고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렸으며,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손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바른 인간이 되며 이슬람식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예언자 아담은 우리의 첫 번째 예언자이며 그의 삶은 꾸란에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 노아(아랍어: 누흐)의 방주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예언자 아담의 죽음 후에도 인류는 번성하였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언자의 길로부터 벗어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아담의 자손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각한 것들을 신으로 섬겼지요. 강하고 부유한 이들은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냉혈해진 이들은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행해야 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평화도 행복도 자취를 감춘 세상이 왔지요. 알라께서는 이에 노아를 예언자로 선택하셨어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왔으며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예언자가 된 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오직 알라를 믿고 그 분의 종이 되어야 함을 설파했습니다. 노아 자신은 그저 경고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알라를 거역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한 그들에겐 어떠한 평안도 행복도 허락되지 않을 거라고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고, 노아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라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약자를 억압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비난하며 노아의 메시지가 퍼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들은 노아와 알라를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어요. 노아는 인내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지배자들과 상류층들은 계속해서 알라를 부인하고 그 분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예언자 노아는 알라께 기도드렸어요. “자비로우신 알라여, 저들이 제 말을 왜곡하고 있나니, 부디 저를 도우소서!” 이에 불신자들은 노아에게 “너희 알라가 우리를 어찌 벌하시나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도전하기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노아는 “저와 믿는 자들을 구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렸고, 알라께서는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지요.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에 알라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셨고, 노아는 숲에서 나무를 가져와 큰 배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알라께서는 방주가 완성된 후 노아를 비롯하여 믿는 자들과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을 방주에 태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불신자들은 눈앞에 닥친 불행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다음날, 하늘은 멱구름으로 뒤덮이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멈출 줄 몰랐지요. 곳곳이 물로 차오르자 불신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살아날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도 많이 와서 바닥이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비웃던 모든 불신자들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날 그치지 않던 폭우가 마침내 끝나자 구름이 흩어졌습니다. 태양이 부드럽게 대지를 비추자, 산들과 계곡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알라께서는 당신을 믿었던 소수의 인간만을 구하셨습니다. 비로소 지상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인류의 두 번째 조상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노아는 우리의 예언자예요. 그는 최초로 배를 만든 사람 이었고 그의 삶은 꾸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 불 속의 장미 정원

노아 이후에 인류는 계속 증가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를 짓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시 인간들은 예언자들이 가르쳐준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 잘못을 저지르고 알라가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이라 부르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알라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 하셨습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아랍어: 이브라힘)도 그러한 예언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터키 땅의 일부분에 위치한 바벨론의 백성을 위한 예언자였어요. 이곳에서는 태양과 달, 별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신이라 여기고 숭배하였지요.

예언자가 되기 전의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이것들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는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달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이 되면 생겼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별들과 달은 나의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태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태양이 뜨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빛나는 태양의 아름다움을 하루 종일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태양은 스르르 사라졌어요. 이를 보아 태양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 즉 태양, 달, 별들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한 아브라함은 며칠 동안 사색에 잠겼고 마침내 유일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의 성품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관대하며 따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사랑했어요. 아브라함 이전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알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권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언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당신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우상들을 왜 숭배하십니까? 소중한 아

버지, 알라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고 어떠한 동반자도 두지 않으시며 그 분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어떻게 너는 우리의 신들을 거역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을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알라께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한 분이신 창조주를 숭배하고 우상들을 그만 숭배하라고 했어요.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니므롯은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전하는 말씀을 멀리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알라를 믿으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니므롯을 초대했습니다. 니므롯은 매우 오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언자 아브라함은 답했지요. “나의 주인은 알라이시며 그 분은 죽음을 주신 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이 말에 니므롯 왕은 사형 선고를 받은 두 명의 남자를 데려오도록 했어요. 그리곤 병사를 시켜 사형수 중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풀어주었지요. 왕은 예언자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자 보았느냐? 나도 죽음을 줄 수도 다시 살릴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말했어요. “나의 창조주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데 당신은 서쪽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니므롯 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여전히 유일하신 알라를 믿기를 거부했어요.

바벨론 안에는 거대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 선물을 가져가 바치고 우상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틈을 타 도끼로 우상

들 중 가장 큰 것 하나만 남기고 모두 부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끼를 하나 남은 우상에 걸어 놓은 채 사원에서 나왔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잔치가 끝난 후 이 사태를 알아채고는 경악했어요. 그들은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었던 예언자 아브라함을 의심했고, 그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 그가 우상들을 부수었는지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도끼를 목에 걸고 있는 자가 범인이 아니겠소? 자 물어봅시다. 아마 그는 누가 그랬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고 우상과 아브라함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이때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놀리지 마시오. 아브라함! 당신도 알다시피 이 우상들은 생명이 없질 않소.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누가 했는지 알겠소?” “다 맞는 말이오. 하지만 볼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도 없는 우상들을 왜 숭배하는 것이오? 온 우주의 창조주를 믿으시오.” 아브라함의 말은 사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이 사건이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가면서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기를 그만두고 알라를 믿게 됐어요. 니므롯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니므롯 왕은 아브라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알라를 믿는 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화형에 처하기로 결심한 왕은 바벨론 중심에 장작을 산처럼 높이 쌓았어요. 예언자 아브라함은 알라께서 보호해주시리라 믿었지만, 니므롯 왕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리란 희망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똑바로 서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화형장 주변에 모이자, 아브라함은 불 가





운데로 던져졌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불길은 아브라함의 몸에 닿는 순간, 장미 덤불로 바뀌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찬 반면 니므롯 왕과 우상숭배자들은 침조차 삼킬 수 없었습니다. 알라께서 불에게 아브라함을 태우지 않도록 명령하시자 모든 것을 태워 버릴 수 있는 불은 아름다운 장미정원으로 변한 것 이지요. 예언자 아브라함은 그 분의 기적에 깊이 감사드렸고, 우상 숭배자들은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을 해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은 알라의 길로 인간을 이끌기 위해 이집트로 이주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알라께서는 이 두 아들에게도 예언자 직분을 내리셨어요.

예언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예언자 아담에 의해 최초로 건축되었던 성스러운 카아바를 원래의 자리에 재건축했어요.

예언자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은 우리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꾸란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 아름다움 중의 아름다움: 요셉(아랍어: 유수프)

야곱(아랍어: 야굽)은 예언자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캐논(Canon) 사람들을 위한 예언자였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 중 11번째였고 벤야민은 막내였어요.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였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려서 엄마를 잃은 그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

냈어요. 요셉은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여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이복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질투하였어요.

어느 날 밤 요셉은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그에게 엎드려 절한 것이지요. 요셉이 이 꿈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 아버지 야곱은 이 아름다운 꿈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예언자가 될 것임을 알게 된 야곱은 요셉을 꽉 껴안았어요. 다만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어요. 형들이 그를 질투 끝에 해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요셉을 더욱 소중히 여겨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요셉을 향한 질투는 더욱 심해졌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요셉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해 요셉을 숲에 데려가자 하자, 아버지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들이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요셉을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모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설득했지요. 결국 형제들은 다같이 숲으로 향했고 인적이 끊긴 곳에 이르자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무자비하게도 우물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은 우물 가장자리의 돌을 잡아 익사를 면했지만, 형들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할까 궁리하기에 바빴지요. 마침내 그들은 사냥한 동물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손에 쥐고 울며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놀고 있는 사이에 늑대가 요셉을 공격했고 온 힘을 다해 그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요셉의 피가 묻은 옷만 겨우 찾아냈습니다.” 예언자 야

곱은 셔츠에 찢어진 한 부분도 없다는 것을 보고는 형들이 일을 저질렀음을 직감했어요. 그는 너무 슬퍼서 아들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당장 쫓아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고통 탓에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요셉은 별 희망 없이 우물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집트로 가는 여행자들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구한 여행자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이집트 고관의 집 노예로 팔았어요.

세월이 흘러 요셉은 청년이 되었고, 나날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고관의 아내는 요셉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무도 없을 때를 골라 요셉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역겨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매우 순결하고 고결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고관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남편을 이용해 요셉을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라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셉은 감옥 안의 사람들의 꿈을 정확히 풀이해줬어요. 알라께서는 그에게 예언자의 임무를 내리셨고 요셉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일곱 마리의 마른 소들이 일곱 마리의 살찐 소들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일곱 개의 푸른 이삭이 일곱 개의 마른 이삭 옆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풀이하지 못하자,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과 알게 된 사람이 파라오에게 요셉의 꿈 해몽에 대해 고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었어요.

예언자 요셉은 파라오의 꿈이 7년간 계속될 극심한 가뭄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7년 후 닥칠 이 가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파라오는 나라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요셉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수확한 곡물 대부분을 저장하도록 명했습니다. 7년 후에 가뭄이 찾아왔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이웃 나라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형들 역시 막내 벤야민만을 아버지 곁에 남겨 두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왔어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벤야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음에 왔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들이 식량에 지불한 돈을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 번째로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막내 벤야민을 데려왔어요. 예언자 요셉은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벤야민에게 말해 주었고,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열싸안았어요. 요셉은 벤야민이 이집트에 남을 수 있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형들이 도시를 떠나려할 때, 누군가를 시켜 벤야민의 가방에 파라오의 값비싼 물건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날 길을 떠나려던 형제들을 경비군들이 멈춰 세우고 수색하자, 파라오가 잃어버린 물건들이 벤야민의 가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벤야민은 체포되었고 그를 구하려는 형들의 노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벤야민을 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집에 돌아온 형들은 이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것도 모자라 벤야민까지 잃게 된 아버지는 극심한 고통의 눈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인내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나는 어느 날 반드시 알라께서 그들을 내게 돌려 보내실 거라는 것을 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

다”라고 말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은 벤야민을 데리러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요셉에게로 간 그들이 이제 벤야민을 용서하고 풀어줄 것을 간청하자 요셉은 “너의 동생인 요셉을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었어요. 두려움이 형들을 감싸는 순간 요셉은 모든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나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내 향기를 맡게 하시오”라고 말하며 그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옷을 받은 아버지 야곱은 가슴으로 요셉의 옷을 안고 오랫동안 향기를 맡았고 옷으로 눈과 얼굴을 닦아냈지요. 알라께서는 야곱의 인내심에 대한 보상으로 시력을 돌려주셨어요. 야곱과 형제들은 다함께 이집트로 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예전에 꾸었던 꿈이 이제 현실로 펼쳐졌어요, 알라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오랫동안 이집트를 정의롭게 다스렸으며, 동시에 예언자로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 선행과 미덕의 길로 인도했어요.

야곱과 요셉 모두 우리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꾸란에 가장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 물에서 건져진 아기: 예언자 모세(아랍어: 무사)

예언자 야곱의 혈통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이후 그들은 이집트에 정착해서 그 수를 늘려 갔어요. 그러나 이집트를 통치하는 파라오는 이스라엘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노예로 취급했습니다. 이 파라오가 어느 날 불길이 그의 왕관을 재로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이스라엘인들의 아들 중 한 명이 파라오의 왕위를 종식시킬 것이라는 내용으로 풀이되었고, 이에 파라오는 무자비하게도 그 해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를 살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모세도 그 해에 태어난 아기들 중 하나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중 알라께로부터 다음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그를 강에 띄워라. 괴로워 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그를 다시 너에게로 돌려 보낼 것이다.”

모세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모유를 먹인 후 입을 맞추고 나무로 만든 요람에 넣어 나일 강에 띄웠어요. 모든 것을 알라께 의지한 채 말이지요. 아직 아이였던 모세의 누나는 동생이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기 모세를 태운 요람은 강물을 따라 파라오의 궁궐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발견한 파라오의 아내는 요람을 건져 그 안을 살펴보았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잠든 것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즉시 아기를 안고 마치 자신의 아기인 것처럼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녀는 파라오에게 아기를 보이고 키우게 해달라고 설득하였고, 그 날부터 모세는 마치 그들의 아기인 것처럼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제 아기에게 젖을 줄 유모가 필요했으나, 아기 모세는 어느 누구의 젖도 빨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에 모세의 누나가 어머니를 불러 오게 되고, 궁궐로 간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빨기 시작했고 파라오의 궁궐 안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른이 된 모세는 예언자 슈아이브의 나라에 가서 양치기로 얼마간 지냈는데, 모세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훌륭한 성품에 깊이 감명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모

세는 그곳에서 슈아이브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그의 부인은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뚜르 산에 도착했을 때, 알라께서 계시를 내려 모세로 하여금 예언자의 책무를 받게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알라께서는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진정한 종교에 대해 설명하라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언자인 형 아론(아랍어: 하룬)과 함께 파라오에게로 가 한 분이신 창조주에게 복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그들의 인도를 거부하며 모세에게 예언자임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해보라고 했어요. 이에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거대한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를 본 파라오는 그것이 마술이라 생각하고 마술사들을 불러 “모세의 마술을 당장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마술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큰 뱀을 지팡이로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마술이 아니라 기적임을 깨닫고 모두 알라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끝까지 알라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파라오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 홍해의 해안에까지 이르렀어요. 모세는 알라께 도움을 구했고, 알라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로 물을 내리치라고 명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자 홍해는 두 갈래로 갈라졌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뚫고 다른 편 해안까지 걸어갔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이 건너려 하자 바다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쳐 모두 익사했어요. 이렇게 하여 알라께서는 믿는 자들을 불신자들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예언자 모세가 생애전반에 걸쳐 겪은 고난은 그의 백성들이 알라만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모세는 우리의 예언자이며 그의 삶은 꾸란에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 철 공예가: 예언자 다윗(아랍어: 다우드)

알라께서는 다윗을 예언자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시편을 보내셨어요. 그는 훌륭한 목소리로 유명해요. 그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는 주변사람들을 모두 감동시켰어요.

알라께서는 그 분이 선택하신 예언자들에게 종교적 지식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관련된 지식도 함께 알려 주셨어요. 그 분께서는 예언자 다윗에게 어떻게 철을 제련하는지를 가르치셨고, 덕분에 다윗은 철을 다루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철제 무기를 이용해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의 예언자이며 그의 삶은 꾸란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 새들과 소통하는 예언자: 솔로몬(아랍어: سليمان)

알라께서는 예언자 다윗 이후 솔로몬을 다음 예언자로 선택하셨어요.

예언자 솔로몬은 알라께서 자신을 훌륭한 통치자로 만들 어주시기를 희망했어요. 알라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어 그에게 동물들의 언어를 가르쳐주셨어요. 이에 더해 솔로몬은 바람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이리하여 그는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군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군대에는 새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던 어느날, 새들 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예언자 솔로몬은 그 새를 불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는 태양을 숭배하는 사바(Sheba)의 빌끼스(Bilqis) 여왕으로부터 소식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언자 솔로몬은 빌끼스 여왕에게 편지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계심을 설파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빌끼스 여왕은 고관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의견을 물었고, 그들은 솔로몬에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끼스 여왕은 예언자 솔로몬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나 예언자가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여왕은 그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언자 솔로몬은 여왕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의 왕좌를 자기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솔로몬의 성에서 본 여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물 위에 세워진 솔로몬의 크리스탈 궁전에 매료되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알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음을 깨닫고 태양 숭배를 그만 두고 유일하신 창조주 알라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솔로몬은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들을 정의롭게 다스렸어요. 솔로몬은 우리의 예언자이며 그의 삶은 꾸란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 말하는 아기: 마리아의 아들 예수(아랍어: 이사)

마리아(아랍어: 마리암)는 고결한 성품과 미덕을 갖춘 여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저명한 이므란(Imran) 집안사람이었어요. 알라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남자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낯선 남자와 마주치자 알라를 두려워하여 자신을 해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가브리엘 천사는 “나는 알라의 전령입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혼란을 느낀 마리아는 “저는 결혼하지 않은 몸이며 부도덕한 여성입니다. 어찌하여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답했고 가브리엘 천사는 “온 우주의 창조주께 이 일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알라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류를 위한 그 분의 기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알라께서는 전능하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산이 임박하자, 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추야자 나무 밑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와 함께 돌아온 그녀에게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아오자 놀라며 그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오 마리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니?”라고 말했어요. 이에 마리아는 “저는 수치스러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는 알라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만약 저를 믿지 않는다면 아기에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아기가 말을 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아기가 말했어요. “나는 알라의 예언자로서 여러분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알라께서는 제가 착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셨고 모든 극단적

인 것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그려셨고 죽음에 이를 때도 부활할 때도 아름다운 것들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기가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더 이상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라나며 그보다 먼저 등장했던 예언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알라를 믿을 것과 선행을 행하고 악행을 멀리할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자 직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와 동료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나 알라께서는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신자들로부터 보호해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예언자이며 그의 삶은 꾸란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 꾸란: 계시의 본질

꾸란은 진실한 계시와 함께 출현하였도다  
 계시를 통해 인간을 일깨웠도다  
 계시를 통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도다  
 죽음은 끝이 아니니 그 까닭은  
 좋은 소식을 계시와 더불어 얻었기 때문이로다  
 계시를 통해 따라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구별하니  
 진실로 명명백백히 중도에 있도다  
 신앙심과 더불어 저주는 명백해졌으며  
 축복받은 말씀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희망, 믿지 않는 자에게 두려움이 내려졌도다  
 시대의 흐름에 파도가 몰아치니  
 이집트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꾸두스(예루살렘)로부터 또 메카와 메디나로부터  
 어둠이 찢기고

때로는 화염에서, 때로는 좁은 우물에서  
때로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전설을 이끌어내며  
계시와 함께 내려오나니  
계시와 더불어 시간도 성숙하였도다.

